전남매일

www.jndn.com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제8705호 (음력 7월 30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 경비·청소 용역 |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재명 충청권 54.72% 압승…본선행 교두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둬 향후 경선에서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본선 직행 교두보를 확보했다. ▶관련기사 5면

이재명 후보는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경선에서 2만1,047표를 얻어 54.72%로 과반을 넘었다. 이에 반해 이낙연 후보는 1만841표로 28.19%를 획득 하는데 그쳤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세종·충북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의 투표에서 7,035표로 54.54%를 획득해 3,834표로

대전·충남, 세종·충북 과반
이낙연 역전 발판 실패 부담
12일 '1차 슈퍼위크' 분수령

29.72%를 얻은 이낙연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앞서 4일 열린 대전·충남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넘는 표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유효투표수 2만5,564표중 1만4,012표(54.81%)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 이낙연 후보를(27.41%)를 2배 격차로 따돌렸다.

이에 따라 반해 반전을 기대했던 이낙연 후보는 추격 또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실패해 향후 경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심과 당심은 다를 것 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재명 후보의 당심 장악력이 발휘되면서 남은 경선에서 민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충청권에서 압승한 이재명 후보가 남은 지역 경선 에서도 과반을 유지하며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지 여부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 최대 강세 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최대한 큰 표 차이로 승리하며 추격에 불을 당길지 주목된다.

문제는 호남권과 수도권 민심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동조 할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추격에 힘을 보탤지 여부다.

당내서는 64만여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가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만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충남에서 과반 득표한 여세를 몰아 '1차 슈퍼위크'를 압도한다면,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고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매직넘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한 모습"이라며 "전국 민심의 표본인 충청지역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과 능력을 보고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다.

오영훈 캠프 수석대변인은 "충남·충북 권리당원과 대의원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순회 경선의 여정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순회경선은 대구·경북(9월11일), 강원(9월12일), 광주·전남(9월25일), 전북(9월26일),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 경기(10월9일) 지역을 거쳐 서울(10월10일)에서 마무리 된다.

3차례에 걸쳐 모집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1~3차 '슈퍼 위크는 '9월12일, 10월3일, 10월10일 발표된다. 본경선 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4~5일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지역인재전형 범위 확대·등록금 면제 등

광주·전남 대학 수시모집 '생존경쟁'

광주·전남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입학 조건을 내걸며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애를 먹는 지방대학의 생존경쟁 시작이다.

5일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남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4,649명)의 68%인 3,163명(광주캠퍼스 2,413명, 여수캠퍼스 750명)을 모집한다.

특히 기존 편입학으로만 선발하던 약학대학 약학부가 올해부터는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며 수시모집에서 43명을 선발한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성적에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전남대의 반영교과(군) 중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한다.

조선대학교는 전체 모집인원인 4,759명 중 77.6%에 해당하는 3,695명의 인재를 모집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약학과 학제 개편에 따른 학부 신입생 모집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다.

특히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수학 과목의 의무 응시, 의무 반영이 없어져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이전 지역인재전형 모집은 광주 또는 전남 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였지만, 2022학년도에는 전북이 추가됐다.

호남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 1,651명 전원을 선발한다. e스포츠산업학과는 지난해보다 9명이 늘어난 30명을 선발한다. 신설학과인 AI빅데이터학과 신입생 25명도 첫 모집한다.

동신대학교는 39개 학과·학부, 1,62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학과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입학등록금 전액을,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100만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일반학과의 경우 충원 합격자에게도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

광주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인원 1,573명(정원내 1,492명·정원외 81명)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1,558명(99%)을 선발한다. 요소별 반영비율은 일반학생전형 학생부 70%+면접 30%(일부학과 면접 40%), 지역 학생전형과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전형 학생부 100%다.

광주여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966명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 I 649명 ▲일반학생전형 II 268명 ▲농어촌학생전형 15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전형 34명이다. /이나라 기자

영락공원 벌초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묘지에서 효령동 주민들이 벌초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시·도, 거리두기 내달 3일까지 '3단계'

사적모임 4명…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속과 다가올 추석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 예상 등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9월말에는 도민 80%이상 1차 접종을 내다본다"며 "한 사람의 빠짐없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지급 ▶2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광주광역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광주상생카드 (선불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광주시 콜센터 (120)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접수 · 처리 : '21.12.3.(금)까지 마감